

알파마트, 30일 알파카트(Alfacart) 론칭... 중산층 대상 생필품 판매 주력

□ 주요내용

편의점 알파마트를 운영하는 소매 대기업 숨버르 알파리아 프리자야(PT Sumber Alfaria Trijaya)가 기존 알파온라인(AlfaOnline) 사이트를 알파카트닷컴(Alfacart.com)으로 이름을 바꾸고 전자상거래(EC) 사업 강화에 나선다.

숨버르 알파리아 프리자야의 히마완 스피아디 IT 이사는 “기존 알파온라인 사이트 변형한 형태의 알파카트닷컴(Alfacart.com)을 마켓플레이스로 만들겠다”고 밝히고 “고객층을 도시 중산층을 대상으로 설정했으며 패션, 가전, 일용품, 생필품 판매에 주력할 것”이라 말했다.

알파카트는 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소비자의 경우,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알파마트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O2O(Belanja online bayar offline·온라인 구매 후 오프라인 지불)’ 서비스도 도입했다. 알파카트는 총 1만 1,750개 점포의 알파마트 중 약 7,000개 점포에서 온라인 주문한 상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온라인에서 구입한 제품을 배송지에서 수령할 때 현금으로 결제하는 COD(Cash-on-Delivery)도 도입했다. 중소기업의 출점도 가능하다. 알파카트의 캐서린 힌드라 수짜호 알파카트 최고경영자(CEO)는 “알파카트닷컴의 올해 매출액을 2013년에 시작한 EC 사이트 ‘알파 온라인(Alfaonline)’의 지난해 실적의 6배로 끌어올리겠다”고 자신했다.

(출처 : 자카르타경제일보 2016/06/03)

□ 시사점

최근 온라인 쇼핑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업체들은 오프라인 매장 뿐 아니라 온라인 매장에도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지 인도네시아 내 유명 미니마켓 프랜차이즈인 알파마트도 전자상거래 사업을 강화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 인도네시아 현지 시장 진출 및 확대 있어 급속도로 증가하는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산업을 잘 활용해야 할 것임